

## 제 10. 보시한 공덕을 비교하는 품

(1) 그 때에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 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혹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혹 중한 자도 있어서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는 이도 있고, 십생 동안 복을 누

리는 이도 있고, 백천 생에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으니, 이 일은 어떠한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 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2) 그 때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이 도리천궁의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염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의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3)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

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4)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지장보살이여, 남염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찰제리나 대바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꼬추 또는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가지의 불구자들을 만나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며 손수 널리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 등이 얻는 복리는 백 항하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자에게 큰 자비심을 발한 연고이니라. 이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7보가 구족할 것인데 어찌 하물며 의식의 부족이 있겠느냐.

(5)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성문·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아서 스스

로 공양과 보시를 하게 되면 이 국왕 등은 3겁 동안 제석천왕의 몸이 되어서 승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능히 이 보시한 복리를 법계(法界)에 회향하면 이 대국왕 등이 10겁 동안 항상 대법천왕이 되리라.

(6)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塔廟)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국왕 등이 발심하여 보수하되, 혹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권하며, 백천인 등에게 보시 인연을 맺

어주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탑묘 앞에서 회향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국왕 및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오니 이 과보 한량없고 가이없느니라.

(7)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모든 국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늙고 병든 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만약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음식·와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1백 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淨居天主)가 될 것이며, 2백 겁 동안은 항상 육욕천주(六欲天主)가 될 것이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에는 부처를 이루리라.

(8)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모든 국왕과 바라문 등이 능히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능히 회향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아니하고 필경 성불할 것이니, 어찌 하물

며 제석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라.

(9)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벽지불·전륜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보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승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능히 법계에 회향한다면 이 삶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10)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나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만나서 혹 한 계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서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능히 법계에 회향하면 그 복은 비유할 수 없느니라.

(11)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나 선여인이 탑이나 사원이나 대승경전을 만나서 새것이면 보시하고 공양하며, 우리러보고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장할 것이며, 오래되어서 혹 헐고

무너진 곳이라면 보수하고 관리하  
되, 혹 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서 하거나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  
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단월(檀  
越)인 사람은 항상 전륜왕이 되어  
선법(善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12)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심는 바 선근으로 혹  
보시 공양하고, 혹은 탑이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정(裝幀)  
하여 관리하되, 한 털끝·한 먼지·한

모래알·한 물방울만한 것이더라도,  
이러한 착한 일을 능히 법계에 회  
향하면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상묘(上妙)한 낙을 받게 되며, 혹은  
단지 자기 집안 권속에게만 회향하  
거나 자신의 이익에만 회향한다면  
이와 같은 과보는 곧 3생 동안만  
낙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공덕은 그 일이 이  
와 같으니라.』

## 제11. 지신호법품

(1) 그 때에 견뢰지신(堅牢地神)이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살을 우러러 뵈옵고 예배하온 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한神通력과 지혜로써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마하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매우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하살이

저 염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저 문수·보현·관음·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저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되 오히려 끝이 있사온대 지장보살마하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겁 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 수와 같나이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미래 및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대·나무로써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또는 금·은·동·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

고 공양하며, 우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하오면,

- ① 토지가 풍년이 들 것이며,
- ② 가택이 길이 편안하오며,
- ③ 조상들이나 죽은 권속이 천상에 나며,
- ④ 살아 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늘며,
- ⑤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 ⑥ 물·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 ⑦ 헛되이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⑧ 나쁜 꿈이 없어지며,

⑨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⑩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만약 능히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도 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면 또한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3) 권뢰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미래세 중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

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 신력으로써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물·불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횡액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케 하오리다.』

(4) 부처님께서 전퇴지신에게 이르시기를,

『전퇴여, 그대의 큰 신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염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가 잘 지키는 덕분에, 초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곡식과 쌀 등은 물론이며, 보배까지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입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 배가 되느니라.

(5)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본원경》에 의하여 단 한 가지 일만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마땅히 근본 신력으로써 그를 옹호하여서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그로 하여금 받게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거늘, 어찌하여 이러한 성현들의 옹호를 받는 것인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경하고, 이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한 때문이며, 자연히 마침내 모든 고해를 벗어나 열반락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받는 것이니라.』

## 제12. 보고 듣는 이익품

- (1) 그 때에 세존께서 정수리 위로부터 백천만억의 큰 호상광(毫相光)을 놓으시니 이른바  
 백호상광(白毫相光)이며,  
 대백호상광(大白毫相光)이며,  
 서호상광(瑞毫相光)이며,  
 대서호상광(大瑞毫相光)이며,  
 옥호상광(玉毫相光)이며,  
 대옥호상광(大玉毫相光)이며,  
 자호상광(紫毫相光)이며,

대자호상광(大紫毫相光)이며,  
 청호상광(靑毫相光)이며,  
 대청호상광(大靑毫相光)이며,  
 벽호상광(碧毫相光)이며,  
 대벽호상광(大碧毫相光)이며,  
 홍호상광(紅毫相光)이며,  
 대홍호상광(大紅毫相光)이며,  
 녹호상광(綠毫相光)이며,  
 대녹호상광(大綠毫相光)이며,  
 금호상광(金毫相光)이며,  
 대금호상광(大金毫相光)이며,  
 경운호상광(慶雲毫相光)이며,  
 대경운호상광(大慶雲毫相光)이  
 며,  
 천륜호상광(天輪毫光)이며,  
 대천륜호상광(大天輪毫光)이며,

보륜호상광(寶輪毫光)이며,  
 대보륜호상광(大寶輪毫光)이며,  
 일륜호상광(日輪毫光)이며,  
 대일륜호상광(大日輪毫光)이며,  
 월륜호상광(月輪毫光)이며,  
 대월륜호상광(大月輪毫光)이며,  
 궁전호상광(宮殿毫光)이며,  
 대궁전호상광(大宮殿毫光)이며,  
 해운호상광(海雲毫光)이며,  
 대해운호상광(大海雲毫光)이니,

(2) 세존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룡팔부, 인(人), 비  
 인(非人) 등에게 이르시되,  
 『여래가 금일 도리천궁에서 지

장보살이 저 인간과 천상을 이익 되게 하는 일과,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십지(十地)를 얻은 일이며, 끝내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을 높이높이 찬탄함이니라.』

(3)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보살마하살이 계시니 명호가 관세음보살이시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퇴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공덕 및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길,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못한다 하시었사옵나이다.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이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보이시었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을 위하시어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시어서 천룡팔부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4)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혹 하늘이나, 혹 용이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신(神)이거나 귀(鬼)이거나, 또는 육도의 죄고 중생까지도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는 그대를 찬탄하는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妙樂)을 갖추어 누릴 것이니라. 또한 인과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룡팔부들을 가엾이 여기고, 내게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에 대한 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5) 관세음보살이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

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 인간이 천상 복이 다하여 다섯 가지 쇠퇴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이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든,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혹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면 이 여러 천상 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늘 어찌 하물며 지장보살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을 가져보시하고 공양함이라. 이 사람이 얻는 바 공덕과 복리는 한량없고 가이 없느니라.

(6)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미래의 모든 세계 중에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침에 이르렀을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이 모든 중생이 길이 삼악도의 고초를 겪지 않으리니, 어찌 하물며 목숨을 마칠 때에 부모 권속들이 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

복 등으로써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탕화를 그리거나, 혹은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거나, 도를 아는 권속들이 집과 보배 등으로써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탕화를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이를 알리어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중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도, 이 공덕을 받아서 병이 나아 수명이 더 길어지나니, 이 사람이 만약 이 업보로 명이 다하여 그 동안의 모든 죄업장으로 마

땅히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공덕에 의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죄업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승묘(勝妙)한 낙을 받으리라.

(7)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혹 젓먹을 때나 혹 세 살, 다섯 살 때와 열 살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고,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악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어느 하늘에 태어났는가」를 몰라 궁금해

할 때,

만약 이 사람이 능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내지 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에서 7일이 되도록 처음에 낸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우러러 보고 예배하며 공양한다면, 이 사람 권속들은 그들이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겁을 지냈다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승묘한 낙을 얻을 것이니라.

(8) 그리고 만약 이미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승묘한 낙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한량없는 낙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능히 3·7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절하면서 그 명호를 염하여서 만번을 채우면 보살께서 무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권속이 태어난 곳을 알리고, 혹은 꿈에 보살이 대신통력을 나타내어서 친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권속을 보여 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매일 보살의 명호를

천 번씩 염하여 천 일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종신토록 보살이 그가 있는 곳의 토지신을 시켜 호위하며, 현세에 의식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는 횡액되는 일이 그 문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정수기(摩頂授記)를 얻으리라.

(9)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이 드높은 보리를

달고자 하는 사람이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되, 혹은 향·꽃·의복·보배나 음식 등으로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나 선여인의 원하는 바가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10)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나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 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백천만 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대자비심으로 길이 자신을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곧 받을 것이니라.

(11)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진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불가사의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며, 설사 밝은 스승을 만나서 이 가르침을 익숙하게 받아도, 금방 읽은 것을

금방 잊어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송할 수 없는 것은, 이 선남자 선여인들이 속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아니한 연고로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사퇴며, 다시 향·꽃·의복·음식 그 밖에 여러 가지 와구 등으로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존상 앞에 올려서 하루 낮 하루 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서 머리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

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런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이 물을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사음(邪淫)과 망어(妄語)와 모든 살생을 칠일 혹은 삼·칠일(三·七日)을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꿈 가운데 지장보살이 가이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 주리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읽어 한번 꿇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계송만이라도 길이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12)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모든 사람의 의식이 부족하여서 혹 의식을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쇠함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권속이 흩어지며, 혹은 모든 횡사가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놀라는 일이 많거든,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염(念)하기를 만 번을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여의치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의식도 풍속해지고, 따라서 잠자는 꿈속에서 안락함을 얻느니라.

## (13)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혹 생계로 인하거나, 혹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혹 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 급한 일로 인하여서 산의 숲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날 때, 이 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 번 염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 위호하여 가나 머무나, 앉거나 누울 때에 영원히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 늑대, 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한 것을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 (14) 관세음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염부제에 큰 인연이 있어 만약 모든 중생에게 이 보살에 대한 보고 들은 이익 등의 일을 말하자면 백천겁 동안을 말하여도 다할 수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신력으로써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겁토록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15) 이 때에 세존께서 계송으로 설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력을 보니,  
 항하사 겁 설하여도  
 다 말할 수 없네.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기 일념 중에,  
 인간, 천상에서  
 그 이익 한량 없어라.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신이거나  
 복이 다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지심으로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수명 늘고 모든 죄상  
 소멸되리라.

(16) 어떤 사람 어려서  
 부모 잃거나  
 형제 자매 여러 권속 흩어져서

자란 뒤에 그네들의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고 그려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3·7일 동안 그 명호를 염하면  
 지장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의 권속 있는 곳을  
 날날이 보이시며  
 악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해내네.  
 만약 능히 첫 마음  
 물러서지 않으면  
 마땅히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17) 위없는 보리를 닦으려 하고

삼계의 모든 괴로움

떨치려 하며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보살 거룩한

형상에 예배한다면

모든 소원 속히 성취되고

가로막는 모든 업장

사라지리라.

(18)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불가사의한 거룩한 원 세웠건만

읽고 읽고 또 읽을지라도

지난 동안 지은 업장

방해가 되어

읽어도 읽어도

기억하기 어려워라.

높고 높은 대승경전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향과 꽃과 옷과 음식 등

모든 장엄구를 지장보살께

공양하며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루 낮 하루 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5신채와 술과 고기 먹지를 앓고

사음과 망어와 살생을

하지 않으며

3·7일간 보살 명호

지성으로 염하면  
꿈속에 만나 보고  
깨어서는 총명 얻으리.

(19) 이 경전 읽는 소리  
꺾가에만 지나가도  
천만 생을 두고두고  
잊음이 없으니  
이 모든 것 지장보살  
불가사의한 힘  
지혜와 총명을 내려 줌이라  
가난하고 병 많은 죄고중생들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권속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고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지 않아도

지심으로 지장보살  
우러러 절하면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의식이 풍요롭고  
착한 신들이 옹호해 주네.

(20) 어찌다가 험한 산과 바다  
지나갈 때에  
악독한 금수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과 악귀들과  
그 밖의 사나운 바람  
온갖 고통 고난이 있다 하여도  
거룩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서도  
모든 재난 영원히 사라지리라.

(21) 관세음보살이여,  
지심으로 들으라.  
지장보살의 위신력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겁에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보살 이같은 공덕  
널리 알릴지니라.  
누구든지 지장보살의 명호  
혹 듣거나  
거룩한 형상을 우러러 절하며  
향과 꽃 옷과 음식 공양 올리면

백천생에 승묘한  
복락을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법계에 회향하면  
끝내는 부처 이뤄  
생사바다 건너가리.  
관세음보살이여,  
이를 마땅히 알라.  
항하사 모든 국토에  
널리 펼지니라.』

### 제13. 사람과 하늘을 부촉하는 품

(1) 그 때에 세존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이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재가 불가사의하도다.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

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겁 동안 하여도 다 말할 수 없으리라.

(2)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궁 가운데 백천만억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 및 천룡팔부의 큰 모임 가운데에서 다시 부촉하노니, 그대는 모든 중생들 중 삼계를 나오지 못하고, 불타는 집 가운데에 있는 자를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 하물며 다시 5무간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져 문득 천만억 겁을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할까 보나.

(3) 지장보살이여,

이 남염부제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을 백천 억으로 나누어서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4)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만약 미래세에 하늘과 인간에 선

남자나 선여인이 있어서 불법 가운데에 자그마한 선근이라도 심되, 그것이 한 털끝 한 모래알 한 물방울만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道力)으로써 이 사람을 옹호하여서, 점점 드높이 위없는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5)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하늘이나 인간의 업을 따라 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계송만이  
라도 외운다면, 너는 이 모든 중  
생들을 신력과 방편으로써 구출하  
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無邊身)  
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하  
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승묘한 낙  
을 받게 하도록 하라.』

(6) 세존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  
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  
내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들지 않도록 하라.』

(7) 이 때 지장보살마하살이 무릎  
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되  
어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원컨대 세존께옵  
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  
이 불법(佛法)을 보고 한 생각의  
공경심을 낸다 하여도, 제가 이제  
백천 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  
여 생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하물며 어찌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생각에 수행  
함이오리까. 이 사람은 자연히 위  
없는 큰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  
을 것이옵니다.』

(8)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虛空藏)보살이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력이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나 선여인과 내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이 있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한다면 몇 가지의 복리를 얻게 되나йка.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간략히 이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9)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거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10) 만약 미래세에 어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며, 향·꽃·음식·의복·보배 등으로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종의 공덕을 얻으리라.

① 천상(天上)과 용(龍)이 항상 지켜 주며,

② 선(善)한 과(果)가 날로 더함

이며,

- ③ 성인의 높은 인(因)을 더함  
이며,
- ④ 보리도(菩提道)에서 물러나  
지 않음이며,
- ⑤ 의식이 풍족함이며,
- ⑥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 ⑦ 물과 불의 재앙을 여일 것이  
며,
- ⑧ 도적의 액난이 없음이며,
- ⑨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 ⑩ 신(神)과 귀(鬼)가 몸소 도와  
춤이며,
- ⑪ 여자는 남자 몸으로 바뀔 것  
이며,
- ⑫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딸이 됨이며,

- ⑬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 ⑭ 천상에 많이 태어남이며,
- ⑮ 후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 ⑯ 숙명의 지혜를 얻음이며,
- ⑰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  
짐이며,
- ⑱ 권속(眷屬)이 기뻐하고 즐거  
워함이며,
- ⑲ 모든 횡액이 소멸함이며,
- ⑳ 업도가 영원히 소멸함이며,
- ㉑ 가는 곳마다 통달함이며,
- ㉒ 밤에는 꿈이 편안함이며,
- ㉓ 먼저 돌아가신 부모 권속 등  
이 고(苦)를 여의며,
- ㉔ 속세(宿世)의 복(福)을 받아

태어남이며,

②5 모든 성현의 찬탄함이며,

②6 총명하여 근기(根機)가 수승함이며,

②7 자비심이 넉넉함이며,

②8 끝내는 부처를 이룸이니라.

(11) 허공장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에 하늘, 용, 귀신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일곱 가지의 이익을 얻으리라.

① 빨리 성현(聖賢)의 지위에

오름이요,

② 악업이 소멸됨이요,

③ 모든 부처님께서 지켜 주심  
이요,

④ 보리도(菩提道)에서 물러서지 않음이요,

⑤ 본원력이 더욱 증장됨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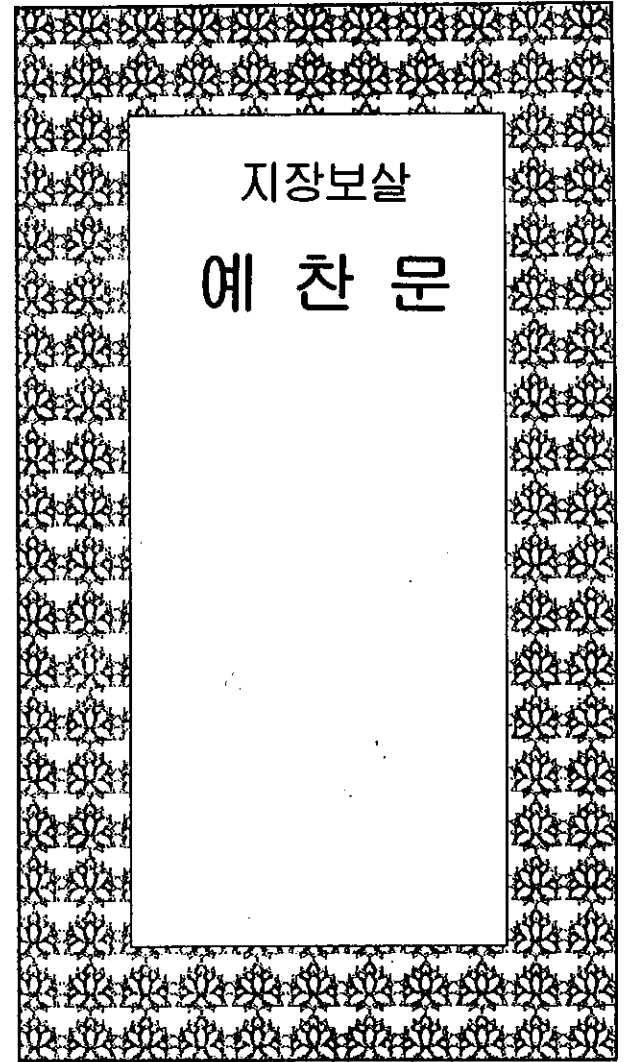
⑥ 숙명을 통함이요,

⑦ 끝내는 부처를 이룸이니라.』

(12) 그 때에 지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말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룡 팔부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높이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13) 이 때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 옷과 보배 구슬 비를 내리시어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 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 지장보살 예찬문

(무릎 꿇고 합장하여)

저희들이 엎드려서 지성다하여  
 향로위에 향 한쪽 사르고나니  
 향기는 온법계를 진동하옵고  
 이땅에서 불국토로 고루퍼지매  
 곳곳마다 상서구름 피어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뜻 살피주시사  
 자비하신 부처님 강림하소서.(절)

지심귀명례 시방법계 상주삼보(절)  
 至心歸命禮 十方法界 常住三寶

「나무 지장왕보살 마하살(세 번)」  
 南無地藏王菩薩摩訶薩

대비대원 대성대자 보살께서는  
 미묘하온 온갖공덕 갖추었으며  
 대해탈의 큰보배가 나는곳이고  
 보살들의 맑고밝은 안목이시며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사이어라.

온갖보배 비내리는 여의주처럼  
 구하는바 그모두를 만족케하며  
 온갖보배 고루갖춘 섬이시오며  
 모든선근 키워주는 좋은밭이여  
 대해탈의 낙을담은 그릇이오며  
 신묘하온 공덕내는 화수분이라.  
 착한이를 비취주는 햇빛이시며  
 더운번뇌 식혀주는 달빛이시며  
 번뇌도적 격파하는 날썰칼이며  
 더운여름 나그네의 정자나무며  
 다리없는 사람에게겐 수레와같고  
 머나먼길 가는이의 자랑이시며  
 길을잃은 나그네의 길잡이시며  
 미친사람 마음잡는 묘한약이며  
 병고중의 사람에게겐 의사이시며  
 늙은이들 의지하올 지팡이시며  
 고달픈이 편히쉬실 평상이시며  
 생로병사 건네주는 다리이시며  
 불국토로 가는이의 보별이어라.

3대선근 두루담은 공덕신이며  
 모든선근 얻게되는 등류과시며  
 수레바퀴 구르듯이 항상베풀고  
 청정계행 견고함은 수미산같고  
 용맹정신 불퇴전은 금강보배며  
 안온하고 부동하기 대지이시며  
 정밀하온 대선정은 비밀장이며  
 화려하온 삼매장엄 화만과같고  
 깊고넓은 대지혜는 바다와같고  
 물들잖고 집착없음 허공같으며  
 묘한과보 가까움은 화엽같으며  
 일체외도 조복함은 사자왕이며  
 일체마군 굴복시킴 용상이시며  
 번뇌도적 모두베는 신검이시며  
 번잡함을 싫어함은 독각이시며  
 번뇌의때 씻어줌은 맑은물이며  
 모든악취 없애줌은 선풍과같고  
 온갖결박 끊으심은 칼날같으며  
 온갖공포 막으심은 아버지같고  
 온갖원적 막으심은 성곽같으며

온갖액난 구하심은 부모와같고  
 겁약한이 숨겨춤은 숲과같아라.

목마른 사람에겐 청량수되고  
 굶주린 사람에겐 과실이되며  
 헐벗은 사람에겐 의복이되고  
 더위속 사람에겐 큰구름되고  
 가난한 사람에겐 여의보되고  
 두려워 떠는이엔 의지처되며  
 농사짓는 이에게는 단비가되고  
 흐린물을 맑힘에는 월애주되어

모든중생 모든선근 두호하시며  
 묘한경계 나타내어 즐겁게하며  
 중생들의 참괴심을 더하게하며  
 복과지혜 구하는이 장엄갖추며  
 번뇌를 씻어내기 폭포수같고  
 산란심을 거두기는 삼매경계며  
 걸림없는 대변재는 수차같으며  
 깊은삼매 부동함은 묘색봄같고

대인욕에 안주함은 수미산같고  
 온갖법을 갈무리심 바다와같고  
 대신죽이 자재함은 허공같으며  
 햇빛에 얼음녹듯 미혹없애며  
 선정도와 지혜섬에 항상노닐며  
 무공용의 대법륜을 항상굴리는  
 수승하온 큰공덕은 측량못해라.  
 오래닦아 견고하온 크신원력과  
 대자비와 용맹정진 크신공덕은  
 일체보살 뛰어넘어 비할데없기  
 잠시에도 쉽없이 귀의하옵고  
 염불하고 예불하고 공양하올때  
 모든중생 온갖고통 모두여의며  
 온갖소원 지체없이 거뒀주시어  
 천상나고 열반길에 들게하시니  
 저희들이 일심으로 정례합니다.(절)

지심귀명례 본사 석가모니불(절)  
 至心歸命禮 本師 釋迦牟尼佛

지심귀명례 극락세계 아미타불(절)  
 至心歸命禮 極樂世界 阿彌陀佛

지심귀명례 사자분신귀족만행불(절)  
至心歸命禮 獅子奮迅具足萬行佛

지심귀명례 각화정자재왕불(절)  
至心歸命禮 覺華定自在王佛

지심귀명례 일체지성취불(절)  
至心歸命禮 一切智成就佛

지심귀명례 청정연화목불(절)  
至心歸命禮 淸淨蓮華目佛

지심귀명례 무변신불(절)  
至心歸命禮 無邊身佛

지심귀명례 다보불(절)  
至心歸命禮 多寶佛

지심귀명례 보승불(절)  
至心歸命禮 寶勝佛

지심귀명례 파두마승불(절)  
至心歸命禮 波頭摩勝佛

지심귀명례 사자후불(절)  
至心歸命禮 獅子吼佛

지심귀명례 구류손불(절)  
至心歸命禮 拘留孫佛

지심귀명례 비바시불(절)  
至心歸命禮 毗婆尸佛

지심귀명례 보상불(절)  
至心歸命禮 寶相佛

지심귀명례 가사당불(절)  
至心歸命禮 袈娑幢佛

지심귀명례 대통산왕불(절)  
至心歸命禮 大通山王佛

지심귀명례 정월불(절)  
至心歸命禮 淨月佛

지심귀명례 지승불(절)  
至心歸命禮 智勝佛

지심귀명례 정명왕불(절)  
至心歸命禮 淨名王佛

지심귀명례 지성취불(절)  
至心歸命禮 智成就佛

지심귀명례 산왕불(절)  
至心歸命禮 山王佛

지심귀명례 무상불(절)  
至心歸命禮 無上佛

지심귀명례 묘성불(절)  
至心歸命禮 妙聲佛

지심귀명례 만월불(절)  
至心歸命禮 滿月佛

지심귀명례 월면불(절)  
至心歸命禮 月面佛

지심귀명례 오십삼불(절)  
至心歸命禮 五十三佛

지심귀명례 진시방 삼세 일체제불(절)  
至心歸命禮 盡十方三世一切諸佛

지심귀명례 지장보살본원경(절)  
至心歸命禮 地藏菩薩本願經

지심귀명례 대승대집지장십륜경(절)  
至心歸命禮 大乘大集地藏十輪經

지심귀명례 점찰선악업보경(절)  
至心歸命禮 占察善惡業報經

지심귀명례 진시방 삼세 일체존법(절)  
至心歸命禮 盡十方三世一切尊法

지심귀명례 입능발지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能發智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무변지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無邊智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청정지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清淨智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참괴지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慚愧智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제승명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諸乘明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무우신통명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憂神通明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승통명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無足勝通明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보조제세간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普照諸世間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제불등거명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諸佛燈炬明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금강광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金剛光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전광명전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電光明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상묘미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上妙味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승정기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勝精氣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상묘제자구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上妙諸資具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무쟁지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無諍智定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세로광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世路光定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선주승금강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善住勝金剛定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구족자비성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具足慈悲聲定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인집제복덕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引集諸福德定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입해전광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入海電光定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이제정력제도병겁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以諸定力除刀兵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이제정력제질병겁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以諸定力除疾病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이제정력제기근겁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以諸定力除饑饉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불타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佛陀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보살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菩薩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독각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獨覺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성문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聲聞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대자재천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大自在天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대범천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大梵天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타화자재천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他化自在天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야마천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夜摩天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도사다천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睹史多天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재석천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帝釋天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사대천왕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四大天王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전륜왕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轉輪王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장부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丈夫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부녀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婦女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동남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童男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동녀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童女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용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龍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야차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藥叉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나찰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羅刹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아귀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餓鬼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사자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獅子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향상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香象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마신우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馬身牛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종종금수지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種種禽獸之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염마왕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閻魔王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지옥졸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地獄卒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현지옥제유정신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現地獄諸有情身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수명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壽命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무병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無病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색력명문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色力名聞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정계다문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淨戒多聞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자구재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資具財寶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혜사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慧捨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묘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妙定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안인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安忍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중방편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方便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각분성제광명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覺分聖諦光明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취입대승정도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趣入大乘正道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법명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法明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성숙유정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成熟有情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대자대비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大慈大悲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묘칭변만삼계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妙稱偏滿三界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법우보운삼계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法雨普潤三界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일체대지정기자미  
至心歸命禮 增長四衆一切大地精氣滋味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일체종자정기자미  
至心歸命禮 增長四衆一切種子精氣滋味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일체선작사업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一切善作事業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정법정기선행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正法精氣善行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유익지수화풍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有益地水火風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증장사증육도피안묘행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增長四衆六到彼岸妙行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우고희구만족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憂苦希求滿足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우고음식충족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憂苦飲食充足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우고자구비족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憂苦姿具備足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원증애락합회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怨憎愛樂合會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유중병신심안온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愈衆病身心安穩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사독심자심상향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捨毒心慈心相向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해뇌옥자재환희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解牢獄自在歡喜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수집편달가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囚執鞭撻加害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창신심기력강성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暢身心氣力強盛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구제근무유손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具諸根無有損壞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요뇌심무광란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擾惱心無狂亂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탐욕신심안락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貪慾身心安樂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위난안온무손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危難安穩無損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포외보전신명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怖畏保全身命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영리우고만족다문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令離憂苦滿足多聞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살생자설숙앙단명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殺生者說宿殃短命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절도자설빈궁고초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竊盜者說貧窮苦楚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사음자설작합원앙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殺淫者說雀鴿鴛鴦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악구자설권속투쟁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惡口者說眷屬鬪諍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훼방자설무설창구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毀謗者說無舌瘡口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진에자설추루응잔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瞋恚者說醜陋癱殘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간린자설소구위원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慳吝者說所求違願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음식무도자설기갈인병보  
至心歸命禮 遇飲食無度者說飢渴咽病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전렵자정자설경광상명보  
至心歸命禮 遇畋獵恣情者說驚狂喪命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패역부모자설천지재살보  
至心歸命禮 遇悖逆父母者說天地災殺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소림자설광미취사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燒林者說狂迷取死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망포생추자설골육분리보  
至心歸命禮 遇網捕生雛者說骨肉分離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훼방삼보자설맹롱음아보  
至心歸命禮 遇毀謗三寶者說盲聾瘖瘂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경법만교자설영처악도보  
至心歸命禮 遇輕法慢教者說永處惡道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파용상주자설윤회지옥보  
至心歸命禮 遇破用常住者說輪迴地獄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오범무승자설영재축생보  
至心歸命禮 遇汚梵誣僧者說永在畜生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탕화참작상생자설체상보  
至心歸命禮 遇湯火斬斫傷生者說遞償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파계범재자설금수기아보  
至心歸命禮 遇破戒犯齋者說禽獸飢餓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비리훼용자설소구궤절보  
至心歸命禮 遇非理毀用者說所求闕絕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오아공고자설비사하천보  
至心歸命禮 遇吾我貢高者說卑使下賤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양설투란자설무설백설보  
至心歸命禮 遇兩舌鬪亂者說無舌百舌報

지장보살(절)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우사견자설변지수생보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遇邪見者說邊地受生報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백천방편교화중생 지장보살(절)  
至心歸命禮 百千方便教化衆生 地藏菩薩

지심귀명례 문수사리보살(절)  
至心歸命禮 文殊師利菩薩

지심귀명례 보현보살(절)  
至心歸命禮 普賢菩薩

지심귀명례 관세음보살(절)  
至心歸命禮 觀世音菩薩

지심귀명례 대세지보살(절)  
至心歸命禮 大勢至菩薩

지심귀명례 아일다보살(절)  
至心歸命禮 阿逸多菩薩

지심귀명례 재수보살(절)  
至心歸命禮 財首菩薩

지심귀명례 정자재왕보살(절)  
至心歸命禮 定自在王菩薩

지심귀명례 광목보살(절)  
至心歸命禮 光目菩薩

지심귀명례 일광보살(절)  
至心歸命禮 日光菩薩

지심귀명례 월광보살(절)  
至心歸命禮 月光菩薩

지심귀명례 무진의보살(절)  
至心歸命禮 無盡意菩薩

지심귀명례 해탈보살(절)  
至心歸命禮 解脫菩薩

지심귀명례 보광보살(절)  
至心歸命禮 普廣菩薩

지심귀명례 진시방삼세일체보살(절)  
至心歸命禮 盡十方三世一切菩薩

지심귀명례 발양계교권선대사 도명존자(절)  
至心歸命禮 發揚啓教勸善大師 道明尊者

지심귀명례 진시방삼세일체현성승(절)  
至心歸命禮 盡十方三世一切賢聖僧

예배하온 큰공덕과 뛰어난행의  
가없는 수승한복 회향하오니  
바라건대 고에빠진 모든유정이  
어서바빠 극락국에 나가지이다.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서구  
중생 「지장보살...(지장보살 염불 백천만번)」